

# 영암군 대불산단 조선업계 숙원사업 결실 맺어

### ‘중소형선박 공동건조사업’ 플로팅도크 구축 완료 내년까지 최대 144억원 선박 원가 절감 효과 기대

영암군은 지난 14일, 영암군 삼호읍 대불부두에서 ‘중소형선박 공동건조사업’으로 구축된 핵심 장비인 플로팅도크 구축 완료와 관련하여 전동평 영암군수, 강찬원 영암군의회장, 송하철 전남대불산학융합원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플로팅도크 규격은 전장 115m, 폭 34m로 최대 5천톤급 선박까지 진수가 가능하며, 과거 대불산단에서 선박을 진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물류비가 적당 4.2억이 들어갔지만, 본 사업으로 구축한 플로팅도크를 이용하면 3.2억원이 절감된 것만 1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선박 원가 절감에 막대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불산단 내 중소형

조선사들은 선박 수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분야에 월등한 강점을 지니게 되었다.

영암군은 2018년 5월에 산업위기에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지역 조선업계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공모사업에 국비 60억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20.3억원 중 군비 16.8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12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영암군 소재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현대중공업공업을 중심으로 조선업 관련 기업체들이 산단 입주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조선산업이 지역기반산업으로 집적화·특화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다. 하지만 주로 대형선박 블록 조립 등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해 국제조선경쟁 동향·이슈에 따라 국내 조선경기 또한 막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암군과 대불국가산단 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들은 뜻을 모아 중소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

대불국가산단 조선업종 입주기업들의 숙원사업의 결실을 2년여 만에 맺어 본 사업의 핵심 장비인 플로팅도크를 이용 300톤급의 선박을 12월 28일 첫 진수를 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중소형선박 공동진수지원센터가 선박 건조 수요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3척, 2020년 8척, 2021년 34척(299톤 이상 강선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수요가 실수요로 이어진다면 총 45척, 144억의 선박 원가 절감 효과로 이어져, 이는 중소형선박 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 기업들의 자립화 사업구조 구축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대불국가산단 조선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선박 진수장이 구축되어 각고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 오늘날같은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 본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본 사업뿐만 아

니라 영암군에서는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레저선박 개발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추진선박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군정의 방향과 부합될 수 있도록 조선산업의 제약진이 영암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안군은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은·안와 보건지소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군은 공모를 통해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고 고성능 창호, 단열재, 조명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면서 이와 함께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축물로, 에너지 성능 개선과 함께 노후된 시설의 미관개선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기동취재본부

## 목포시, 상공회의소 선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 228개 지자체 대상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 공개



목포시가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지자체의 기업환경을 항목별로 조사해 평가하는 사업으로 전국 8,700여개 지역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업체감도’와 기업활동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하는 ‘경제활동진화성’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시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발표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단위 중 기업체감도 부문 종합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규제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평가여서 의미가 더욱 크며, 이 같은 성과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세심한 행정을 펼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

목포시는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9.3점을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고 특히 기업수요에

맞춘 지원과 규제개선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양산단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용지 매입부터 공장설립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실수요자를 위한 업종배치, 신규업종 추가, 필지분할 등 기업 맞춤형 분양활동을 적극 추진한 점이 인정 받았다.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 기업에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44%지원, 입주 시 취득세·재산세 75% 감면하고 부서별 분양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전 공직자가 함께 나서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저조했던 분양율을 2020년 11월 85%까지 끌어올렸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이번 성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규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나가 목포에서 성장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광군, 내수면어업계 설립 새로운 공동 소득원 길 열다

### 불갑저수지 공동어업 면허로 신규 내수면 어업 기반 확충

영광군은 “내수면어업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불갑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주민들에게 내수면어업계 설립을 인가하고 공동어업 면허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면어업에서 소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한 내수면어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불갑 저수지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이었지만 앞으로는 합법적인 어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불갑 저수지에 2021년까지 31억을 투입하여 유류저수지지원화 사업으로 인공산란장과 인공수초 등 어류의 산란환경 및 생태환경을 마련하고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퇴치 후 경제성이 높은 토산어종인 잉어, 붕어, 뱀장어, 동자개 등을 방류하는 유류저수지지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갑 테마공원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수면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족자원 산란과 수변, 수생식물 관찰 학습이 가능한 생태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준선 군수는 “이번에 구성된 불갑 내수면 어업계 처분으로 마을주민들의 공동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내수면 어류 등을 활용한 토산 어종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 육성과 불갑 관광지 주변에 메기, 붕어, 동자개, 장어 등 민물고기 전문식당 조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군, ‘영산강변 집중호우 수해쓰레기 처리’ 불편 해소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던 영산강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

무안군은 16일 남악신도시 롯데아울렛부터 동부센트레빌 까지 영산강변 1.2km 구간에 버려진 수해쓰레기 1,540톤의 소각처리를 끝내고 제조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상가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곳으로써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예정보다 빨리 작업을 끝마칠 수 있었다.

군은 일로써 옹동리에서 몽탄면 이산리까지 나머지 10km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쓰레기 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으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영산강을 깨끗하게 보존해 나갈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수해쓰레기 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영산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어 주세요!